

47번째, 농기구이야기

제주도의 찻는 도구 ‘남방애’



<남방애, 木碓 Wooden Mortar

최대지름 1025 높이 440 농업박물관 소장>

- | | |
|--|------------------|
|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 발행일 : 2012.2.1 |
|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 |

1. 남방애의 개념과 역사

남방애는 '나무로 만든 방아'란 뜻의 제주도 방언으로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방아에 절굿 공이를 이용해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빻을 때 사용하였으며, '남방아'라고도 한다. 뜻이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절구'의 모양을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초에 김정(金淨)이 지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는 '제주도에는 절구는 있으나 방아는 없다...'라고 묘사하거나 17세기 정온(鄭蘊)이 지은 동계집(桐溪集)에서도 제주도에서는 방아가 없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흔한 디딜방아는 제주도 지방에는 흔치 않았고 방아를 주로 이용하였다.

2. 남방애의 형태

남방애는 큰 통나무를 잘라 내서 세로로 자른 후, 마치 초립이나 갓을 뒤집어 놓은 듯 한 형태로 다듬고 면이 넓은 위쪽을 2층으로 깎아 내어 가장자리는 운두를 높게 깎아 울타리를 짓고, 밑바닥 한복판은 동그랗고 깊게 구멍을 내어 그곳에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만든 돌확을 고정시켜 놓았다. 돌확에 담긴 곡식은 절굿대와 마찰되어 껍질이 벗겨지며, 가장자리로 튀어나오는 곡식은 빗자루로 쓸어 돌혹 속으로 모아 담으면서 찢기를 계속한다. 밑동은 사각형으로 깎아내어 받침대로 삼고 마치 굽이 높은 접시형태로 만들었다.



<돌확(돌혹) 부분 ©농업박물관>

3. 제주의 방아

남방애는 절구에 해당되나 일반적인 절구형태에 비해 제주의 방아는 유난히 크다. 규모가 직경 80~150cm 높이 50~70cm 정도로 부녀자들이 서서 일할 수 있다. 재료는 느티나무, 벃나무, 가시나무를 이용한다. 일반적인 절구는 기껏해야 두 사람이 공이를 잡고 마주 서서 찼을 수 있는 너비밖에 안되지만, 제주의 방아는 보통 3명이, 최고 6명까지 동시에 찼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앞의 경우를 '셋콜방애', 뒤의 경우를 '여섯콜방애'라고 한다. 발벼와 보리, 그리고 떡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에 불린 쌀이나 좁쌀을 빻기도 한다.



© 뿌리깊은나무 사진

제주도의 '남방애'가 유난히 큰 까닭은 제주도의 농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지면적 중 57.4%가 논인데 반하여 제주도는 경지면적 중 논은 0.5%뿐이다. 곧 한국의 농업문화는 도작문화(稻作文化)인데, 제주도만은 전작문화(田作文化)라고 할 수 있다. 논농사의 산물인 벼의 탈곡은 그 껍질을 벗기면 그만이나, 밭농사의 산물인 잡곡의 탈곡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보리쌀인 경우 껍질을 벗기고 다시 으깨야 하며, 조인 경우도 껍질을 벗기면 그만이나, 낱알이 작아 벼의 탈곡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곡구인 방아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방애, 제주도 전래 농기구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구도감』, 2001.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1995.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2004.